



유작이 돼버린 복귀작 '정이'

11년만에 복귀작 연상호 감독 첫 SF물 선택
최근까지 밝은 모습으로 녹음 마치며 열정 보여

강수연은 주연작인 영화 '정이'를 끝내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고인은 11년 만에 택한 장편영화 주연작으로 그 어느 작품보다 애정과 열정을 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영화는 '부산행'과 '반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 등을 연출한 연상호 감독의 첫 SF물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인류가 지구에서 살기 힘들어진 22세기를 배경으로 피난처인 '헬터'에서 벌어지는 내전 상황을 그린다.

고인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정예 용사인 정이의 뇌를 복제해 인간형 전투로봇으로 만들려는 연구소 탐장 역할을 맡고, 정이를 연기한 김현주와 호흡을 맞췄다.

스크린 복귀작을 고심하던 고인은 시나리오에 녹아있는 연상호 감독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SF라는 기존에 해보지 않은 새로운 장르에 흥미를 느껴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크랭크업했으며 최근 진행된 후시 녹음도 밝은 모습으로 마쳤다.

고인이 별세하기 전날인 6일 "최근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대화했다. 곧 일어설리라 믿는다"고 전했던 연상호 감독은 7일 자신의 SNS에 "한국영화 그 자체였던 분"이라며 "선배님과 함께한 지난 1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슬퍼했다.

넷플릭스는 공식 SNS를 통해 "항상 현장에서 멋진 연기, 좋은 에너지 보여주신 고 강수연 님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좋은 작품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고인의 모든 순간을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9@donga.com

“임종 직전 수연씨, 처음으로 평화로웠다”

-김동호 장례위원장이 본 마지막 강수연

“어렵게 살아와…부디 영면하길”
‘오랜 절친’ 김동호위원장 추모글
배우 박정자 “많이 외로웠을 것”
박신애 대표 “살 자체가 대스타”

“인공호흡기 낀 수연 씨, 처음으로 평화로운 모습이였다. 영면하기를…”

강수연과 오랜 세월, '아버지와 딸'처럼, 때로는 '절친', '동지'로 지낸 김동호 고 강수연 영화인장 장례위원장은 8일 "그동안 세파에 시달렸고 어렵게 살아왔던 수연 씨가 처음으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을 봤다"며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이날 고인의 빈소를 지킨 김 위원장은 "이제



김동호 장례위원장

우리의 곁을 떠나셨으니 앞으로 저세상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평화롭게 영면하기를 바란다"고 추모했다.

예상치 못한 영원한 이별에 가슴 아파하는 감독, 배우, 제작자 등 영화관계자들도 저마다 SNS를 통해 생전 고인과 함께했던 추억을 돌이키며 애도했다. 빈소를 찾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고인의 대표작 '씨받이', '아제 아제 바라아제' 등을 연출한 거장 임권택 감독은 그 누구보다 침통한 표정으로 빈

소를 찾아 "고인 같은 좋은 배우를 만났던 건 행운이다. 고인 덕에 내 영화가 빛날 수 있었다"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 오랜 세월 함께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촬영에 지장을 준 적이 없는 영리한 배우"라고 추억했다.

'기생충'을 제작한 바르손이엔에이 파킨스에 대표는 "우리 세대 영화인의 중심"이라고 고인을 가리키며 "살 자체가 대스타이자 배우이면서 아티스트였다. 동료 선배배들과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셨다"고 말했다.

영화 '웨스턴 애비뉴'에서 고인과 함께 호흡했던 배우 박정자는 "지나치게 목소리 나는 목소이어서 외로웠을 것 같다"며 가슴 아파했다.

김규리는 "나에겐 등대 같은 분"이

라고 돌아섰다. 드라마 '문화'의 이승연은 "언제나 당당하고 멋지고 아름다웠던 전설의 여배우"라고 추억했다. 드라마 '여인천하'를 함께한 안영홍은 "나처럼 새까만 후배도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던 언니"라고, 이상아는 "아역 때부터 활동한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해주던 언니"라며 그리워했다.

이처럼 생전 동료들에게 파스한 추억을 안기며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고 강수연을 정부는 훈장 추서로 위로할 전망이다. 이날 빈소를 찾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고인은 영화사에 큰 역할을 하시고 또 하실 분"이라며 "올해 가을 훈장 추서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승미·유지혜 기자 smlee@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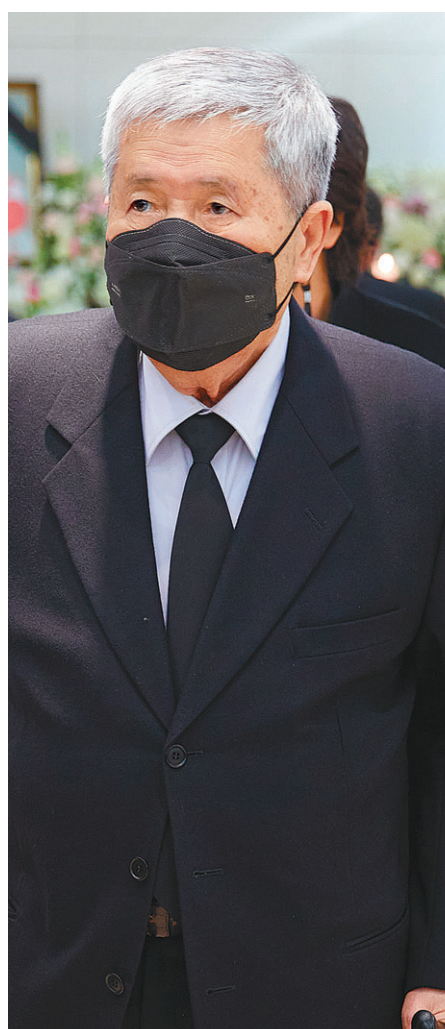
“할말이 뭐가 있겠냐…” 말 잊지 못하는 임권택 감독

두 오빠와 여동생 조문객들 맞아
봉준호 감독 “실감 나지 않는다”
43명 영화인들 ‘영화인장’ 준비
11일 영결식은 유튜브로 생중계

“영정사진이 영화 소품처럼 느껴질 만큼 실감 나지 않는다.”

7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 강수연의 비보에 영화계 안팎에서는 이틀째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생전 강수연과 인연을 나눈 영화계 동료들은 잇따라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유족인 두 오빠와 여동생이 슬픔 속에 조문객을 맞았다. 고인의 연기와 작품을 사랑한 관객은 온라인에서 추모 열기를 피우고 있다.

1986년 '씨받이'로 고인과 호흡을 맞추며 이듬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1989년 '아제 아제 바라아제'로 모스크바영화제 최우수여배우상의 기쁨을 함께 누린 거장 임권택 감독의 눈물은 더욱 슬퍼 보였다. 지팡이를 짚은 몸으로 전날에 이어 8일 오전 빈



임권택 감독과 봉준호 감독(왼쪽부터)이 8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에 조문하고 있다. 사진제공 | 故 강수연 배우 장례준비위원회



소를 다시 찾은 임 감독은 “할 말이 뭐가 있겠냐. 먼저 가니 아쉬울 뿐”이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불과 몇 달 전에 보였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 “영정사진이 영화 소품처럼 느껴졌다”고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영화계는 이 같은 슬픔을 모아 고인의 장례를 영화인장으로 치른다. 생전 고인과 우정을 쌓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국제영화제를 함께 이끈 김동호 전 이사장(현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장례위원회를 꾸렸다.

임권택·임상수·정지영 감독, 배우 김지미·박정자·안성기·손숙 등 11명이 고문을 맡았다. 장례위원은 배우 명계남·문성근·문소리·설경구·예지원·유지태·전도연·정우성 등과 강우석·이창동 강제규·류승완 감독 등 49명의 영화계 동료들이 나섰다. 장례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치러지는 영결식을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방침이다. 한편 강수연은 장지인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용인공원묘원에서 영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 기자 yjh304@donga.com

‘배우 강수연 별세’ 1면에서 이어집니다

●연기대상

국제적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강수연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경마장 가는 길', '그대 안의 블루' 등 주연작을 연이어 흥행시키며 휘황날았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처

녀들의 저녁식사', '송어' 등 새로운 문법을 내세운 작품을 통해 한국영화의 질적 확장을 이끌었다.

2001년 16년 만에 출연한 드라마 SBS '여인천하'로 3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조선 중기 '악녀' 정난정 역을 맡아 한겨울에 계곡물에 입수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투혼

을 과시해 2001년 연기대상을 안았다.

●진정한 영화인

2011년 임권택 감독의 '달빛 길어올리기' 이후 특별출연 형식으로 일부 작품에만 얼굴을 내비치며 숨고르기 시간을 가졌다. 그 사이 2015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나서 3년간 헌신했다.

영화와 관련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던 고인은 후배들에게 늘 자존심을 강조하는 선배이기도 했다. 류승완 감독의 영화 '베테랑'에 등장했던 "우리가 돈이 없지, 가요(폼)가 없냐"라는 대사는 후배들과 스태프를 살뜰히 챙겼던 고인의 말을 그대로 빌려 온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복권은 성인이 되면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세요”

1910 만 세 이상 만원 이하

·만 19세부터 구입할 수 있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Lotto 6/45 1014 회 당첨번호 (추첨일: 2022년 05월 07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3	11	14	18	26	27	21

1등 총 당첨금 2,410,449,339원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금에 기초하며, 당첨 개입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개입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10	2,410,449,339원
2등 5개 숫자일치 + 1등 보너스일치	69	58,223,414원
3등 5개 숫자일치	2,849	1,410,115원
4등 4개 숫자일치	143,906	50,000원
5등 3개 숫자일치	2,372,712	5,000원

*상기 당첨금은 1등당 당첨금에 기초합니다. (세금 공제 전)

·동행복권 콜센터: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www.dhlot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해당 화자 지급계시일로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 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구입할 수 있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세요. ·당첨금(1인당 1회 10만원 이하)은 복권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